

5주차

진인출현설의 형태와 변형들

한 승 훈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진인, 건국자 혹은 찬탈자

- 건국자로서의 진인
- 찬탈자로서의 진인
- 반역자로서의 진인

02. 영웅신화로서의 진인출현설

- 영웅 신화 구조와 진인 이야기
- 건국 영웅과 아기장수
- 성공한 영웅과 실패한 영웅

03. 진인출현설의 패턴과 효과

- 비범한 출생
- 사라진 아이
- 진인 탐색
- 임박한 도래

04. 진인출현설의 변형들

- 바다를 건너오는 진인의 배
- 북벌론과 두 사람의 진인
- 셋으로 나뉘는 나라
- 돌아오는 반역자들

4차시

진인출현설의 변형들

학습목차

학습목표

- 진인출현설의 다양한 변형들을 살펴본다.
- 각각의 진인출현설 형태가 가진 효과를 검토한다.

학습내용

- 바다를 건너오는 진인의 배
- 북벌론과 두 사람의 진인
- 셋으로 나뉘는 나라
- 돌아오는 반역자들

바다를 건너오는 진인의 배

해도진인설 해상진인설

정경에 대한 쓰시마 번주의 보고서 (1675)

“6백년 전에 승려 도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말세에 관해 적어놓은 책에
5백년 쯤 뒤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래 것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朝鮮國二而風說之覺書》

성호 이익의 기록 (1758)

“번왕(藩王)이라는 것은
정지룡(鄭芝龍)의 아들 정경(鄭經)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즘 옥에 갇힌 사람이 끌어댄 바다의 진인이라는 것을
정경의 아들이라고들 한다.”

《與安百順》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
주씨(朱氏)를 세워 천하를 평정하고
정금(鄭錦)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오려 하였습니다.”

《肅宗實錄》 숙종 5년 5월 (2일)

“갈 곳은 정경(鄭經)의 나라다.
조선을 정가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盧繼信推案》

대만의 조선 장악 시나리오

만약 병선 50여 척에 각각 정예병 백여 명을 세워
곧바로 경강에 다다라 서강(西江)에서
용산(龍山)까지 배를 벌여 놓고 강 마을에
“나는 인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흠어지지 말라”고 영을 내린 후 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모두 호장(壺漿)을 가지고 와서 맞이할 것이다.
이때 북을 치고 떠들썩하게 나아가 민가에 불을 지르며
사변을 일으키면 비록 대신이나 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달아날 겨를이 없을 것이다.

《逆瑛推案》

천주교 신부는 협객?

저는 그에게 교(敎)를 받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하는 중에
저를 협객(俠客)이 아닌가 의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

“나도 사람을 모아 해도로 건너가
무기를 정비하고 큰 배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바로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선대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한다.”

《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서양의 배와 해도진인

섬에 한 사람의 성인(聖人)이 있어서
조선의 철물, 말, 미곡을 남김없이 사들이고 있다.

《邪學罪人姜彝天等推案》

북벌론과 두 사람의 진인

정씨와 최씨

“전남도의 장수는
최영의 8대손인 최씨 성의 사람이고,
경상도의 장수는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逆賊益信等推案》

정씨와 최씨

“진인이라 불리는 정씨와 최씨 두 사람을 얻어
먼저 우리나라를 평정해 정씨를 임금으로 삼고,
다음으로 중원을 공격해 최씨를 황제로 삼는다.”

《李榮昌等推案》

몽골의 진인

“어찌 진인은 아직 출현하지 않는가

.....

언젠가 대신 천하를 소유할 자는
반드시 몽골에 있을 것이다.”

《燕行後錄》

이진채 사건 (1812)

“중원이 혼란스럽다고 들었다.
만약 패해서 영고탑(寧古塔)으로 도망간다면
우리나라에 길을 빌릴 것이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罪人振采等推案》

청나라는 조선에게 망한다

우리 동국은 은혜를 받고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도리 상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맡아야지 핑계를 댈 수 없다.
“고월(古月:胡)이 어양(魚羊:鮮)에게 망한다”는 말이
오늘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明齋遺稿》

“두 진인설”의 문화적 배경

- 유교 엘리트들에게도 설득력
-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세울 두 번째 진인
- 청이 조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이필제의 두 진인설

옛날 단군의 영이 유방(劉邦)으로 다시 태어났고,
유방의 영이 주원장(朱元璋)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 세대에 이르러 단군의 영이 다시 세상에 나왔으니,
하루에도 아홉 번 변하는 존재인 나다.
하나는 최제우 선생의 치욕을 갚으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재앙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내가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오직 중국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崔先生文集道源記書》

“두 진인설”의 변형

- 17세기 : 명예 대한 의리, 청에 대한 복수
- 19세기 : 탈중심적 세계관

셋으로 나누는 나라

삼국분열설

- 진인출현설의 변형
- “삼한”으로서의 한반도
- 세 개로 나누어지는 지세(地勢)

양우철 사건 (1687)

이때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림(鷄林)에 도읍하고,
하나는 완산(完山)에 도읍하며,
하나는 송악(松岳)에 도읍하고,
하나는 평양(平壤)에 도읍한다.
계림의 성(姓)은 박(朴)씨이고,
완산의 성은 탁(卓)씨이고,
송악의 성은 위(魏)씨이며,
평양의 성은 기(奇)씨이다.

《梁禹轍推案》

홍복영 사건 (1785)

조선의 산천에는 천문과 지리가
모두 셋으로 갈라질 징조가 있습니다. ……
세 개로 나뉘는 나라의 성씨는 정씨, 유씨, 김씨로
결국에는 정씨가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正祖實錄》 정조 9년 3월 1일

이진채 사건 (1812)

『정감록(鄭鑑錄)』에 우리나라는
여러 해의 전쟁이 있는 후
나라가 셋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罪人振采等推案》

삼국분열설의 기능

- 변란 참여자들의 혁세적인 목적에 적합
- 왕조 전복의 ‘중간 과정’ 묘사
- 변란 계획에 현실성 부여
- 모반의 실행을 위한 모델 제공

돌아오는 반역자들

정여립 사건의 신비한 인물들

- 정팔룡 : 왕이 되어 계룡산에 도움을 정할 인물
- 길삼봉 : 노비 출신 도적
- 백일승 : 용맹한 자에게 붙여진 칭호

황진기 불사설

- 무신란(이인좌의 난)의 행방불명된 지도자
- 청 망명설, 승려설 등
- 이지서 사건(1748)의
“황진기는 죽지 않았다” 주장

홍경래 불사설

- 홍경래, 우군칙 등 반란 지도자들의 사망 부정
- 제주도 등지에서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

과거의 반역자들

- 실패한 반란을 장차 일어날 말세의 징조로
- 패배한 이들은 예언된 진짜 진인이 아님
- 진인출현설의 논리 강화

정리

- 진인출현설의 특수한 영웅신화 패턴
-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
- 역사적으로는 호국적 담론
- 변란 맥락에서의 혁세적 이용

REFERENCES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연원과 현장』 (문예출판사, 1992)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Jonathan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